

생각하면 지난 一月下旬

그리운 서울의 하늘 밑에서는 선생께서 幽明의 가름길을 헤메이고 계실 때 저는 그도 모르고 노르만키니 뿌르다뉴이니 보르도니 하는 西南佛地方의 先史遺蹟地를 巡遊하고 있었읍니다. 요사이 蕉雨兄이 보내 준 글월을 보오니 先生께서 病院에서 임으신 이승 마지막 편지가 바로 이 旅行에서 드린 저의 글월이었다고요 그리고 카르낙 先史遺蹟地에서 라스코의 洞窟에서 喜喜樂樂해서 적어 보내드린 저의 그림 葉書들은 先生께서 棄世하신 후 靈前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도 모르고 잠시 여가 여가에 카르낙에서 그리고 라스코에서 선생께 보여드릴 잠생긴 피석들을 주으면서 마음이 즐거웠읍니다. 실상 저는 선생께 드릴 다른 아무것도 갖인 것이 없읍니다. 가사 서리찬 한 밤내 밤새워 새기셨다는 저의 雅印들, 그 어느 것 하나만에 담어 주신 情愛에 만이라도 더구나 碧梧桐을 감싸주시듯 항상 감싸주시던 따뜻한 훈기에도 보람을 드릴만한 일을 저는 지닌 것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몇해전 제가 나야가라에 들렀을 때 잠생긴 水磨石들을 주어 갖고 고국에 돌아간 일이 있었읍니다. 그때 선생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돌들을 즐겨하시고 저에게는 단 하나도 않남겨 놓으실만큼 이 돌들을 탐내주셨읍니다. 저는 그것이 기뻐했읍니다. 무엇보다도 돌을 반가워해주는 그 心境에 저의 마음은 보람을 느꼈읍니다.

저에게는 정말 돌따위 밖에는 이제도 先生께 보여드릴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는 줄 스스로 압니다. 말하자면 주체스럽기만한 돌들을 스콧드랜드의 북쪽 끝에서도 서쪽 불란서의 언덕길에서도 즐겨 주면서 그때마다 오고가는 선생과의 對話가 있어서 제 단엔 늘 흥겨웠읍니다.

그 때 이미 선생께서는 이 세상에 안계신 것을 저는 그도 미처 모르고 이 무거운 돌들을 앓고 巴里로 돌아온 것입니다. 말이 없는 이 차디찬 돌들을 가슴에 앓고 저는 이제 어느 자리로 나가 앓을까요. 누구와 이 쌓이고 쌓인 긴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할까요. 생전에 무엇으로나 드릴 것이 없었던 저는 이제도 이 묵묵하고 잠생긴 돌들이나 앓고 마음껏 울어드릴 밖에는 다른 것으로 이 큰 슬픔을 풀어 드릴 길조차 오늘날도 저에게는 아

무것도 지닌 것이 없읍니다.

一九六二·三·一三 未明에 프랑크프르트市에서 拜泣

### 아버님 靈前에

全 暎 雨

오늘도 먼지 속에 묻혀 아버님의 너무도 생생한 손길을 더듬으며 하루 해가 갑니다. 보양계 먼지 덮힌 하나하나에 가버리신 아버님의 내음을 맡을 수 있었읍니다. 먼지에 겨슬린 梧桐의 크고 작은 箱子들에게서 무르고 고운 面面에 無數한 傷痕을 찾아 봅니다. 너무나 무릎에 너무나 곱기에 그 많은 傷處를 입었기에 그 속의 하나의 티없이 푸른 先人의 마음을 용케 다치지 않고 살았읍니다. 허나 이 梧桐 箱子와 같이 험한 길을 헤메다니며 시달리던 主人은 滿身瘡痍의 傷痕을 몸에 지니고 곱게 가셨읍니다. 心中의 티 없이 傷하지 않은 얼을 잔지 하신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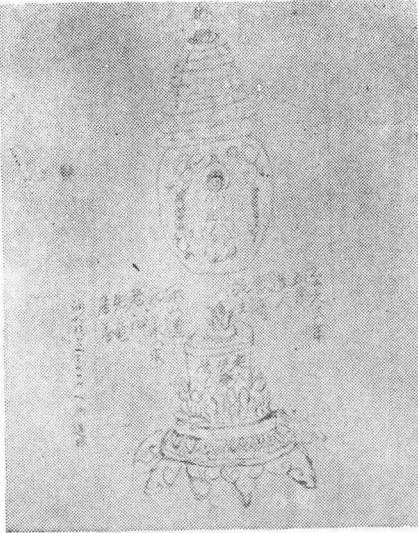
梧桐 箱子의 두정을 가만히 열고 늦은 밤이면 가득히 蠶을 채우시고 뭍지도 흐뭇해 하시던 象嵌의 곱디고운 靑磁의 蠶를 가만히 어루 만져 봅니다. 靑色이 종이처럼 얇고 溫和한 形態 그러나 감히 犯치 못할 強靱함에 몸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單純한 듯 하면서도 묘하게 다가가는 線속에서 은근히 풍기는 멋과 흥을 맛 봅니다. 秘色이라 일컬었던 옛 사람의 表現에 그 率直性을 認定치 않을 수 없읍니다. 조출한 그 러나 뒤에 숨겨진 찬란한 色感에 象嵌으로 가날뜨게 이어져나간 白土의 폭 파문린 唐草紋의 連續 위에 너무나 맑은 가신 아버님을 느껴 봅니다. 아버님의 입김이 또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해가 바뀌도록 버림받은 이 蠶가득히 아버님의 體溫을 담아 봅니다. 자랑을 모르는 이 조그마한 象嵌의 푸른 高麗의 蠶! 謙遜의 도타운 釉藥의 表膜을 뚫고 새어나오는 燦然한 光彩에 다시 한번 가버리신 아버님의 모습을 또 이 蠶에 술을 채우시고 마즈막으로 談笑하셨을 여러 先生任들의 모습을 되새겨 볼

니다. 술을 좋아하시던 술을 애끼시던 아버지! 餞別의 盞이 되고만 이 푸  
르기만한 이 한 盞에 가득히 술을 따르시기 爲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  
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아버님이 쓰시던 벽장속에서 까  
맣게 먼지 앉은 『松竹梅』 한 瓶을 찾았습니다. 生前에 아끼시어 秘藏해  
두신 淸酒였읍니다. 卽슬리고 엷은 梧桐의 箱子 그 속의 고운 高麗象嵌  
의 푸른 盞, 노르끼리한 錦貝色의 『松竹梅』 한 瓶... 먼지속의 이들과  
가버리신 아버지 사이에 罪스러운 調和를 느낍니다. 벌써 봄이 길었으  
니 來日은 世上없어도 손수 가꾸시던 앞마당의 가득찬 봄기운을 내려  
다 보시며 미소지우실 아버님의 几筵앞에 이 작은 푸른 盞에 『松竹梅』 한  
잔을 가득 넘치게 올려야겠습니다.

一九六二年 三月 六日

### 高麗在銘 舍利塔

黃 壽 永



高麗의 金屬工藝가 낳은 梵鐘 香奩 金鼓等 佛器以外에 信仰對象인 舍  
利를 奉安하였던 舍  
利藏置具가 있다.  
이 곳에 紹介하는 一  
例①는 全高 二四·  
五cm의 小塔形이며  
發見經緯에 關하여  
서는 아무것도 傳하  
지 않으나 佛舍利 또  
는 高僧大德의 遺骨  
을 奉安하기 위하여  
經營된 石塔 또는 石

浮屠같은 곳에서 日帝時에 出世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發見當時에는  
이 舍利塔을 藏置하였던 金屬 또는 陶磁의 容器나 一括遺物로서 다른 莊  
嚴具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나 現存하는 것은 이 塔뿐이다. 그러나 多幸  
이도 塔內에는 舍利容器와 그 藏置가 原形대로 保存되었었고 또 그 곳에 銘  
文이 있어 造成年代와 關係人名을 알 수 있는 點에서 한층 貴重하다. 그  
形式이 内外의 兩器로 區分되므로 그에 따라 說明하겠다.

(A) 舍利塔... 蓮花臺座와 塔身相輪이 모두 圓을 基型으로 삼아 別個  
各一로 造成되었었다. 臺座는 八個의 卷脚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陽刻된 覆  
蓮이 둘러있고 다시 上面外緣에는 單瓣으로 오려낸 仰蓮을 三重으로 附  
着시킨 간단한 構造이다. 塔身은 細長의 卵形으로서 內空인데 上下兩端  
이 좁아 들면서 水平으로 截頭되어 위로는 相輪이 만들어졌다. 塔身을  
들어서 立佛 四驅가 있고 그 間地는 瓔珞文으로서 區劃하였는데 모두 細線  
陰刻되어 있다. 이 같은 手法은 既出의 類品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인데 四  
方佛의 配置로 解釋된다. 佛形은 頭光이 있는 螺髮通肩의 正面像으로서  
모두 合掌하였었다. 相輪은 圓板形의 九輪이 上部를 向하여 遞減되었고 頂  
上에는 蓮蕾形의 寶珠가 連珠紋座에 놓여 있는데 이것 또한 內空이다.

(B) 舍利容器... 이것은 外護의 圓形容器와 八角塔形舍利器로 區分別  
造 되어 있다. 前者는 徑 四cm 高 四·二cm의 小圓筒으로서 上部에 圓蓋  
가 있는 바 圓筒周圍에는 銘文이 있고 圓蓋의 中央에는 蓮蕾紐가 圓座위  
에 만들어졌다. 八角圓堂型의 舍利容器는 銀製로서 高가 三·五cm에 不  
過한데 臺座에서 分離된다. 臺座는 八脚위에 臺盤形이 있어 이 곳에서 八  
角塔身의 下緣과 서로 맞아서 엮이게 되었는데 이 塔身下部는 二重으로  
만들어졌다. 塔身은 無紋內空인데 그 위에 過大한 八角屋蓋가 놓여 있다.  
屋蓋表面은 上下 二重으로서 斜線의 刻文이 있고 隅棟이 表現되었으며  
頂上에는 大小의 寶珠가 三重으로 놓여 있다. 이 八角小塔內部에 舍利가  
奉安되었던 것으로서 綠色의 鑲物片이 남아 있다. 藏置의 順序로서 이  
八角容器를 圓筒內에 安置하고 그 上面을 圓蓋로서 密閉하였던 것이며 이  
들을 다시 塔身이 包藏하여 蓮花臺上에 奉安하였으므로 舍利는 合計 三  
重을 이루는 藏置具內部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바이다.